

# AUSTRALIA WORKING HOLIDAY



여행정보



여행정보 제공 사이트

# 여행정보

## 여행정보 제공 사이트

호주정부 관광청	www.australia.com
ACT(캔버라)	www.visitcanberra.com
NT(북부 준주)	northernterritory.com
NSW(뉴사우스웨일즈)	www.visitnsw.com
QLD(퀸즐랜드)	www.queensland.com
SA(남호주)	www.southaustralia.com
TAS(테즈메니아)	www.discovertasmania.com.au
VIC(빅토리아)	www.visitvictoria.com
WA(서부호주)	www.westernaustralia.com



## 20대인 당신이 호주에서 꼭 가봐야 하는 곳

### ① ACT 캔버라

[www.visitcanberra.com](http://www.visitcanberra.com)

캔버라는 연방 수도로 국가의 문화시설 및 행정시설이 다수 들어서 있을 뿐 아니라, 예술 커뮤니티와 신선한 음식, 바 업종이 활성화되어 있음.  
현대 문물과 자연 환경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캔버라는 발견과 배움, 즐거움의 도시.



캔버라는 행정수도(Australia Capital Territory)  
1830년 유럽정착민이 유입  
1908년 수도로 지정  
캔버라(Canberra)는 "만남의 장소"라는 뜻의 원주민어 "Kamberra"에서 유래  
시드니에서 약 3시간 반 거리/멜번 약 8시간  
각국 대사관(한국대사관 포함)등 공관들이 있으며, 전쟁기념관과 플로레이드 꽃축제 및 수도 하늘을 가로 지르는 열기구 등이 유명



주요관광지



- 국회의사당
- 퀘스타콘 - 국립 과학기술 전시관    국립호주미술관    국립호주박물관    전쟁기념관
- 열기구 -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사당 상공을 가로 지르는 비행이 가능
- 콕킹턴 그린가든 - 세계유명 건축물을 전시해놓은 야외 공원
- 플로레이드 - 봄시즌 꽃축제(SEP-OCT)

②

NT  
북부  
준주



[northernterritory.com](http://northernterritory.com)

| 북부 준주는 아웃백이 대표적인 곳이며 다윈과 에어즈락(울룰루)로 잘 알려져 있음.  
| 호주 원주민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지역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이들의 예술과 문화도 체험할 수 있음.  
| 다윈은 세계 자연 유산에 등재된 카카두 국립공원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고 있음.



울룰루

ULURU

지구의 배꼽,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 지구의 배꼽이라고 불리는 울룰루는 유명 소설가이자 영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의 배경으로 유명.  
| 높이 348m, 둘레 약 9km의 바위 산으로 신성한 땅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됨.  
| 어떤 방식으로 울룰루를 여행하든 자신의 존재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음.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울룰루-카타츠타 국립공원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지역이며 호주 원주민의 숨결과 자연의 웅장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으며, 밤하늘의 별들의 아름다움의 극치를 선사하는 지역입니다. 이외에도 카타츠타와 킹스캐년도 아웃백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니 꼭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곳 리조트인 보아지에서 제공하는 체험프로그램인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와 원주민 닷페닝 강좌는 꼭 체험해보시기 바랍니다.

③

NSW  
뉴사우스  
웨일즈



[www.visitnsw.com](http://www.visitnsw.com)

| 세계 3대 미항  
| 호주 경제 산업의 중심 | 한국인의 가장 많이 찾는 도시  
| 8년 연속 세계 최고 도시로 선정 (콘드 나스트 트래블러)



시드니

SYDN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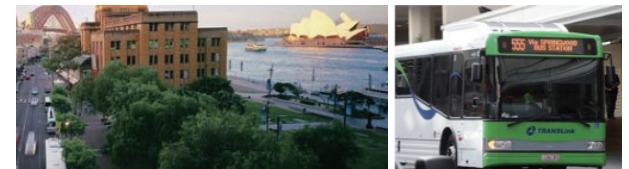
낭만적인 20대를 위한 Bonza 자전거 투어

| 화창한 날씨의 시드니를 자전거를 타면서 주요 관광지 여행  
| 2시간부터 5시간까지 다양한 투어 프로그램 선택 가능  
| [www.bonzabiketours.com](http://www.bonzabiketours.com)



합리적인 20대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555번

| 시드니 중심의 주요 명소를 무료로 관광할 수 있는 셔틀 버스  
| 센트럴 스테이션에서 서큘러키까지 양방향으로 운행  
| 시드니 주요 명소를 무료로 관광할 수 있어 워홀러들에게는 유용함.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공식투어

밖에서만 보는 오페라 하우스는 그만, 오페라 하우스 100% 즐기기

- |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호주의 항구 도시인 시드니에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연 예술 장소이며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되어있음.
- | 오페라 하우스의 내부, 역사, 건축 양식 뿐 아니라 오페라 하우스에 얽힌 흥미로운 스토리들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공식 투어
- | 한국어로 진행되는 투어도 매일 4회 진행 됨.



블루 마운틴(Blue Mountain) 트래킹

20대라면 도전해 보자, 호주에서의 트래킹!

- | 시드니에서 서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산악 국립공원 멀리서 보았을 때 진한 푸른 색을 띠고 있어 블루 마운틴이라는 이름을 갖게 됨.
- | 세계 자연 유산에 등재되어 있으며 드라마틱하게 솟아오른 절벽과 깊은 계곡과 동굴, 미개척 산림 등을 걷는 1000여개의 트래킹 코스는 20대의 모험심과 도전정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



저비스 베이 (Jervis Bay)

세상에서 가장 하얀 모래가 있는 해변에서 즐기는 바다

- | 시드니 남쪽으로 약 170km 떨어진 저비스 베이는 익스트림 크루즈와 돌고래 크루즈, 세계에서 가장 하얀 백사장으로 유명한 곳.
- | 크루즈 주변에서 헤엄치는 돌고래를 직접 관찰 할 수 있음.



CAIRNS



GOLD COAST

www.queensland.com

- | 호주 동북부에 위치한 2번째로 큰 주
- | 연중내내 화창하고 온화한 기후 선사인 스테이트(Sunshine State)
- | 황금빛 모래해변, 내륙의 열대우림, 산호초 지대인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가 자랑
- | 신혼여행, 배낭여행, 가족여행 등에 적합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당신의 버킷리스트를 완성할 수 있는 곳!

- | 케언즈는 BBC선정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관광지인, 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와 영화 <아바타>의 배경이 되었던 쿠란다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연이 펼쳐져 있는 곳.
- | 스카이 다이빙, 스킨스쿠버, 스노클링 등 20대들의 버킷리스트 단골 액티비티들을 한번에 경험해 볼 수 있는 도시.



젊음의 도시, 서퍼스 파라다이스에서 제대로 즐기자!

- | 골드코스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퍼스 파라다이스(Surfers Paradise)'를 비롯한 아름다운 비치들 주변으로 고층 건물들이 우뚝 솟아있는 현대적 도시.
- | 화려한 나이트 라이프와 세계적인 테마파크와 같은 동적인 여행 뿐 아니라 해변에 누워 햇빛을 쬐는 힐링 여행까지 가능한 곳.





브리즈번

BRISBANE

따뜻한 햇빛 아래에서 즐기는 여유로움

| 브리즈번은 화창한 아열대 기후와 독보적인 자연의미를 갖춘 현대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 도심에서 만나는 해변인 사우스뱅크와 서울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여유를 느껴 볼 수 있음.

| 호주의 유명맥주 XXXX 공장 투어와 초콜릿 공장 투어도 절대 놓쳐서는 안될 관광 포인트!



주요관광지

사우스뱅크    퀸즐랜드 맥주인 XXXX 맥주공장 투어    스토리 브릿지 클라임

로파인 코알라 보호구역    마운틴 쿠차    시로멧 와이너리

탕가루마 리조트(야생 돌고래 먹이주기)    퀸즐랜드 아트 갤러리



SA  
남호주

[www.southaustralia.com](http://www.southaustralia.com)

| 남호주는 호주 중앙 남부지역에 위치하며 호주 대표적인 와인 생산  
| 바로사밸리, 맥라렌배일, 쿠나와라, 애들레이드힐 등이 와인 생산지역  
| 캥거루 아일랜드(애들레이드에서 약 2시간, 그리고 페리로 45분 이동)  
아웃백 체험과 함께 동물보호구역 : 실베이, 리마커블 록



애들레이드

ADELAIDE

문화와 예술의 도시, 와인의 도시

| 애들레이드(Adelaide)는 남호주의 주도이며 호주횡단열차의 출발점이자 교통의 요지.  
| 문화와 예술, 와인의 도시로서 아가지자한 도시가 관광 포인트이며 트램을 타고 20여분 떨어져 있는 글레넬그 비치는 지친 일상을 쉬게 해줄 힐링 포인트.



주요관광지

애들레이드 보타닉가든

스카이스티 카지노

펜폴드 와이너리

중앙시장과 차이나 타운



바로사 밸리  
& 캥거루  
아일랜드

바로사 밸리는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최고의 와인 산지

바로사 밸리



약 150개의 와이너리와 셀러 도어가 있으며 신선한 농산물, 레스토랑으로도 유명한 맛집 탐방이 취미인 20대 워홀러라면 꼭 방문해야 할 곳

캥거루 아일랜드



호주 바다 사자, 캥거루, 코알라, 알라비, 펭귄, 등 다양한 동물을 볼 수 있음.

험준한 바위 지형, 지하 동굴, 우거진 숲을 여행하고 해변과 만에서 수영, 스노클링, 다이빙, 낚시를 즐길 수 있음.



6

TAS  
타즈마니아



호바트

HOBART



주요관광지

[www.discovertasmania.com.au](http://www.discovertasmania.com.au)

| 타즈마니아는 크기와 상대적으로 훼손되지 않은 자연 환경의 덕택에 '자연의 주'와 '영감의 섬'으로 불림.  
| 타즈마니아의 37%가 국립공원, 세계문화유산으로 보호중.



역사의 도시, 문화의 도시

| 현대적이고 역사적인 매력이 가득한 작은 도시.  
| 식민지 시대 건축물을 둘러보는 역사적인 투어 뿐 아니라 다양한 현대 미술이 주는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를 경험해 볼 수 있음.  
| 청정 해변과 최신식 바, 레스토랑을 만나볼 수 있는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도시.



웰링턴 산    살라망카마켓    Cascade 맥주공장 투어    브루니 섬투어

MONA(museum of Old and New Art)

7

VIC  
빅토리아



멜버른

MELBOURNE



그레이트 오션  
로드

GREAT OCEAN  
ROAD

[www.visitvictoria.com](http://www.visitvictoria.com)

| 남동부에 있는 주(州)이며, 본토에 있는 주 중 가장 작은 주  
| 호주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고 도시화된 곳



호주 안의 작은 유럽, 호주의 트렌드 선도 도시

| 멜버른은 가장 호주다운 곳인 동시에 유럽의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도시  
| 다채로운 이벤트와 트렌디한 패션을 즐길 수 있는 곳  
| 3000여 개의 레스토랑이 전세계 미식가를 유혹 하는 '미식가의 도시'이며 어디를 가든 멋진 카페가 있어 환상적인 커피 문화를 즐길 수 있음.



죽기전에 꼭 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

| 호주 토지에서 워넘볼까지 300km에 이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바닷길  
| 다양한 자동차 CF의 단골 촬영지 이자 죽기 전에 방문해야 할 관광지 중 하나  
| 신이 만들었다는 12사도상은 최고의 하이라이트(파도 침식에 의해 현재 8개 밖에 남지 않음)



8  
WA  
서부호주



퍼스  
PERTH

[www.westernaustralia.com](http://www.westernaustralia.com)

| 호주에서 가장 면적이 큰 주 (호주 전체 1/3, 남한의 33배 크기)



인도양과 접하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

| 서부호주의 주도인 퍼스는 바다와 사막의 경계에 문명의 꽃을 싹 틔운 도시.  
| 호주에서 가장 일조량이 많은 지역으로 365일 중 반 이상이 맑은 날씨가 지속되며 온화한 기후.  
| 소설 어린 왕자의 바오밥 나무 아래에서 보는 별들이 가득한 밤하늘과 핑크색 호수는 평생 잊지 못할 풍경.



브룸  
BROOME

진주의 도시, 꿈의 도시

| 브룸은 호주의 숨은 보물 같은 땅  
| 호주인들에게도 꿈의 휴양지인 브룸은 호주의 마지막 미개척지인 김벌리 고원을 연결하는 관문.  
| 김벌리 비치는 아름다운 석양과 마치 달로 갈 수 있는 계단처럼 보이는 야경으로 유명.



# AUSTRALIA WORKING HOLIDAY

9

안전정보



기본사항 | 주요 안전정보 | 한·호 형사제도 차이점